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지지부진'

사업비 131억 투입 2015년 시작… 아직 첫 삽조차 못 떠
지금도 토지보상 협의 중… 시 "2023년까지 완공 할 것"

서귀포시 원도심을 문화벨트의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문화광장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홍동에 소재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대안시설로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과 대규모 광장, 커뮤니티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의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 이후 문화광장 사업 부지 내 있는 서귀포소방서 및 동홍119센터 이전 등을 실시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부지 내 임시주차장을 완료한 뒤 동홍천 설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추진했다.

또 시는 올해 5월 기준 현재 총 8필지 중 7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문화광장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지부진 하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서귀포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시는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제도가 변경되고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 복합적인 이유로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더욱이 이미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나머지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면서 사업 완료 시점도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와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해 보상협의를 완료한 1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했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20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6월 재개

테마코스·이벤트투어 등으로 나눠 모두 20회 운영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보류됐던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이 재개된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2020년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을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예방 조치가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재개를 결정했다.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은 서귀포지역에 산재한 건축자원을 통해 제주의 삶에 스며든 문화·자연·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2015년 농림부 창조지역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6~2017년 10개의 테마코스 개발 등 노력을 통해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8~2019년 해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사 심화보수교육을 운영하는가 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투어를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건축문화기행은 여행전문업체 '퐁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테마코스 투어 16회, 이벤트 투어 4회 등으로 꾸려진다. 6월 6일 첫 투어는 현충일을 기념해 오전에는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모슬포항 주변과 동굴진지, 4·3사건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1코스를 찾는다. 오후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길과 국토최남단 향교 등이 있는 2코스를 탐방하게 된다.

지난해 진행됐던 서귀포시 건축문화기행 투어 모습. 사진=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는 27일부터 내달 3일 사이 첫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회당 모집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여행자보험은 개인부담이다. 참가 신청·회차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및 제주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퐁낭(762-2178).

한편 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가인원을 회차당 15명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행사 당일 발열체크·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병행한다.

현영종기자

"소나무류 이식 할때도 재선충병 검사 받아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소나무류 조경수와 분재를 이식할 때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감염 여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발생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직경 2㎝ 이상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추자면과 도내 7개 지역(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소나무류를 옮겨심기 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 이동할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하도리 해안도로 질주 25일 한 무리의 라이더들이 돌담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원 도정 공약이행 총점 70점 '최고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시·도지사 대상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최고등급'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5일 '2020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제주도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총점 70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5곳이다.

평가는 110여일간 이뤄졌으며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2019년 목표달성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총 115개 공약 중 완료 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51건이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 평가됐다. 정상 추진은 57건, 일부 추진은 6건이다. 공약이행 재정확보내역을 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은 총 9조 3771억원으로, 이중 지난해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27.2%(총 2조5540억원)이다. 이태윤기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절감도 무료진단… 내달까지 모집

제주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진단이 무료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내달 24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진단 전문 인력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실태 및 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점검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처방한다. 이태윤기자

코로나19 취약계층 방역활동 '구슬땀'

민관합동대책반, 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호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일부터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보호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보호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는 정보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시스템 감염 취약 계층을 집중 관리·보호하며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내 감염증 취약대상 약 9만3000명을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민관합동대책반과 매칭시켜 집중 모니터링을 가동하고 있다.

민관합동대책반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의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지원협의회 등의 지역사회 민간 인적자원망이 총동원된 조직이다.

이들은 주 2회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재가 취약계층을 확인하면 진료기관으로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월 21일 기준 총 5만4651명을 대상으로 117만6385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관리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집단 거주시설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로당 등 이용 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조치 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